

나이가 들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많이 닮아간다는 말을 듣곤 한다.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 나이가 아버지의 인상중 제일 깊이 기억될 시기가 아닌가 싶다.
내가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내 작업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나의 작업은 표면상으로는 중국으로 오면서 변화를 가졌고,
내적으로는 아마도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시기에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나의 누나들은 나를 보며 내 뒷모습부터 걸음걸이, 생활습관까지 점점 아버지 같다고 한다.
"정말 내 몸에 아버지가 있는가?"하는 물음이 떠오르며 이내 여러가지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내 속에 아버지의 취향이 있다면, 그 취향은 어떤 것일까?
내가 지금 나의 취향이라고 믿는 것들과 아버지의 것은 같을까?
"내 속에 아버지가 있다." 이것은 나에게 점점 철학적, 종교적, 인문학적 물음들로 이어져갔다.

난 어느순간부터 도자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흙을 만지면서 살았지만 이전의 도자기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현대미술이란 지적인 미의식과 감각에 푹빠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던 중 혹시 아버지의 미감을 떠올렸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들은 조선을 살아냈고, 그보다 더 이전의 시간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내 안에는 아득한 시간의 취향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서양적 미학으로 보던 관점이 아닌 내 조상이 준 감성의 관점으로.
그들은 많은 것을 남겨주고 가셨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동안 뭔가 불편했던 느낌들이 봇물처럼 쏟아져나왔다.
옛 그림에서 옛 가구, 옛 도자기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던 그것들에게서 너무나 많은 느낌들을 전해 받았다.
아마도 정말 내 안에 아버지가 존재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전에는 진부한 줄만 알던 그것들이 한순간에 휘몰아치듯 느껴오니 말이다.
내가 그렇다고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현재에 살고 있다.

오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혹시 무의식중에 버려버린 보석은 없나 살펴보는 중일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난 그 사소함에 마음이 간다.
일전에 에스키모인들이 눈을 표현하는 방법이 백가지가 넘는다는 말을 들은 것이 있다.
나 역시 백자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줄 최근에 절실하게 느껴가고 있는 중이다. 유약과 시간의 때가 이룬 그 빛과 색은 나를 황홀하게 한다.
그 수많은 청화의 푸른 빛 또한 나를 들뜨게 한다.
난 지금 그것들과 이미 알고 있던 그것 밖에서 너무나 신비로운 신세계를 접하고 있다.
두서도 없는 글이지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서툰 내 글재주로 이정도 밖에 설명할 수 없음이 못내 아쉽다.

2015. 8.3
경덕진에서 이승희